충북지사·청주시의장도 "호남고속철 서대전역 경유 안된다"

'오송역 활성화' 충북 민·관·정 협의체 구성

광주·전남·전북 광역의회의장, 송정역서 규탄대회

호남고속철도 서대전역 경유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충청지역에서도 서대전역 경유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표명했다. 같은 충청권 내 반대 목소리는 서대전역 경유의 명분이 그만큼 낮다는 것을 반증한다.

호남고속철도 노선이 다음달 결정될 예정이어서 오송역 활성화와 호남권 공조 등을 다루게 될 충북 민·관·정 협의체가 조만간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26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우리나라 철도망의 기능과 오송역의 위치를 놓고 보면 오송은 심장과 같은 곳"이라며 "오송역의 KTX 분기역 의미가 퇴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충북도는 앞서 지난 22일 "호남고속철도 서대전역 경유는 KTX 본연의 고속기능을 훼손할 수 있고, 오송역을 정차하지 않은 채 통과할 우려가 있어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청주시의회(의장 김병국)도 이날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레일과 국토교통부는 호남고속철도 서대전역 경유에 관한 논의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충청권 4개 시·도가 최근 공동현안에 대한 공조체계 강화를 위해 추진·설립한 충청권 상생협력기획단(이하 충청상생기획단)이 출범 초반부터 호남고속철 서대전역 경유를 놓고 갈등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충청상생기획단은 충청권 시·도민의 권익 및 공동 발전을 위한 정책발굴과 대정부 공동대응을 위해 구성됐다.

한편, 광주와 전남·북 광역의회 의장들이 호남고속철도 서대전역 경유를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광주시의회 조영표 의장, 전남도의회 명현관 의장, 전북도의회 김광수 의장 등 호남권광역의회 의장단협의회는 이날 광주 송정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호남고속철도를 저속철로 전락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호남고속철도는 수도권과 호남권을 신속하게 연결,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면서 "서대전역 우회 운행은 고속철도 건설의 근본취지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부는 이번 코레일이 내놓은 호남고속철도의 저속철 계획안을 즉각 반려하고, 개통 2개월을 남겨놓고 국민적 합의를 무시하고 여론을 분열시킨 코레일 사장을 즉각 해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호남권광역의회 의장단협의회의 조영표 광주시의회 의장(왼쪽에서 여섯번째), 명현관 전라남도의회 의장(〃 다섯번째), 김광수 전라북도의회 의장(〃 일곱번째)을 비롯한 광주시의원들이 26일 광주송정역 광장에서 호남선 KTX서대전역 경유는 '호남 저속철' 계획안이라며 "정부는 서대전역 경유를 즉각 철회하라"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내년부터 중등교원 양성 인원 단계적 감축"

교육부, 유치원 원아모집 과열막기 제도 보완키로

교육부가 내년부터 사범대, 교육대학원 등에서 배출되는 중·고등학교 교원의 양성 인원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26일 '2015년 업무계획 자료'에서 "교원 양성기관 평가의 내실화와 양성과정 재승인을 통해 교원 양성 규모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양성 과정별 특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중등교원의 임용고사 경쟁률이 최근 5년간 16대 1이나 될 정도로 수요와 맞지 않았다"며 "양성 규모를 감축하는 방안은 다음 달부터 6개월 동안 정책연구를 거쳐 확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공립 중등교원이 되기 위해서는 사범대나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일반대학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한 뒤 시·도교육청 주관의 임용고사에 합격해야 한다. 사립 중·고등학교는 일반적으로 교원을 자체적으로 선발한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과 맞물려 중등교원 양성기관을 평가한 뒤 내년 2월 나오는 결과에 따라 양성과정을 폐쇄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인위적인 조정을 두고 사범대 등 교육현장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교원의 업무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교권 보호를 강화하는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치원 원아모집의 과열 현상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된다.

교육부는 유치원 입학 시 학부모 불편과 과열경쟁을 해소해야 한다며 시·도교육청이 유치원 원아의 모집군 설정, 중복지원 및 등록제한, 입학취소를 할 수 있도록 연내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는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 누리과정(만 3~5세 공통교육과정) 지원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국내 바닷가 면적 23.8㎢…여의도의 8.2배

우리나라의 바다와 육지 사이에 있는 바닷가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8.2배인 23.8㎢로 조사됐다.

해양수산부는 26일 바닷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06년부터 2014년까지 33㎡ 이상의 도서지역을 제외한 전국 바닷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바닷가는 침식, 해수 범람 등 재해예방을 위한 완충공간으로, 만조 때 수면과 직접 맞닿아 토지로서의 이용이 제한을 받는 공공재산으로 분류돼 있다. 전체 바닷가 면적 중 인공시설물이 설치된 '이용바닷가'는 12.74㎢로 53.4%, 자연바닷가는 46.6%인 11.09㎢였다.

서해안 바닷가 면적이 10.26㎢로 전체 바닷가 면적의 43.1%로 가장 많았다. 또 바닷가 중 토지로 등록이 가능한 1139필지, 252만㎡는 국유지로 등록돼 있다. 이들 가운데 공유수면매립 및 점용·사용을 통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비정상적인 이용 바닷가는 12.3%인 2.94㎢로 확인돼 개선조치를 하고 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해수부는 또 유인도서에 대한 바닷가 실태조사를 착수키로 하고, 규모가 크고 인구 밀도 등이 높은 제주도, 울릉도, 자은도를 우선 조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하반기 북한서 '남북종교인 평화대회'

광복 70주년 기념 8~9월 7대 종단 수장 참석 예정

광복 70주년을 맞아 올해 하반기 북한에서 남북종교인이 함께 모이는 남북종교인평화대회가 열린다.

7대 종단 협의체인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사무총장인 김광준 신부(대한성공회)는 26일 서울 광화문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평화대회 개최를 두고 북한의 5대 종단 협의체인 조선종교인협회와 사전 교감이 된 상태"라면서 "2~3월 실무회의를 통해 일정과 장소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대회 내용이 결정되면 4~5월 중 KCRP측 실무진이 방북해 실무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남북종교인평화대회는 8~9월 중 열릴 예정이며 장소는 금강산이나 평양을 고려 중이나 평양이 유력하다. 평화대회에는 7대 종단 수장들이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

KCRP는 또 8월15일 광복절을 전후해 강원도 철원의 노동당사나 경기도 파주 도라산에서 평화음악회 개최도 준비하고 있다. KCRP는 이밖에 오는 2018년 세계종교인평화회의(WCRP) 제10차 총회의 한국 유치를 추진 중이다.

/연합뉴스

황교안 장관 오늘 광주 방문

동구서 '아동학대 예방' 간담회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27일 광주를 방문한다.

황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30분 광주시 동구 구성로 광주스마일센터를 찾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의견을 수렴한 뒤 상경한다. 광주 스마일센터는 범죄 피해자와 가족들의 심리 치유를 위해 임상심리 전문가나 심리치료, 법률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

광주시 '저심도 지하철' 안전성 검증 착수

광주시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의 최대 주안점을 안전에 두고 구체적인 방안마련에 나섰다. 시는 저심도(低深度) 공법으로 확정된 2호선 건설과 운영과정의 안전에 대한 전방위적인 검증에 나서기로 했다.

광주시는 26일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저심도 경량전철 건설 방식에 대한 안전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민관 합동 해외연수 등 전면적인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국내 지하철은 1974년 서울 1호선 개통을 시작으로 인천,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등 광역시에서 운영 중이지만 저심도로 건설된 곳은 없다.

저심도 지하철은 일본과 독일, 프랑스 등 3곳에 있다. 일본은 도쿄 지하철 1호선 아카쿠사선과 4호선 마루노우치선, 독일은 뮌헨 도시철도 시스템인 U-반선, 프랑스는 리옹 지하철 4개 노선이다.

프랑스 리옹 메트로는 31.5km에 이르는 4개 노선 중 80%가량이 저심도 구간이다. 시는 우선 저심도 건설공법의 안전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한국수력원자력(주)
2015년도 경력사원, 연구원 및 별정직 모집안내

1. 모집분야 및 인원

모집분야			선발예정 인원(명)	비고
전문분야 경력사원 (10명)	변호사		4	
	공인회계사		3	
	경영연구		3	
사이버보안 경력사원 (16명)	침해사고분석		1	
	정보보안		12	
	모의해킹		1	
	정보보안시스템		2	
연구원 (6명)	방사선 의학연구		2	의학전문의
	비상 의료연구		1	
	방사선 역학연구		2	
	방사선 생물학연구		1	
별정직 (7명)	홍보실	촬영담당	1	* 지역별 지원 및 선발 - 한빛 :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광역시 - 월성 · 한울 :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한빛본부	임상병리사	1	
		응급구조사	1	
	월성본부	조리사	1	
	한울본부	임상병리사	1	
		응급구조사	1	
	방사선보건원	생물학기술원	1	
합계			39	-

2. 지원 자격요건

구분	자격요건
연령	• 제한 없음
학력 및 자격사항	• 홈페이지 참조(모집분야별 상이)
병역	• 남자의 경우 병역필('15. 2. 5 이전 전역자 포함) 또는 면제자
기타	• 당사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이 없는 자

3. 지원서 접수

• **지원서 접수기간** : 2015. 1. 29(목) 10:00 ~ 2. 5(목) 15:00
※지역주민(가점 · 지역지원 대상) 확인기간 : '15. 1. 23(금) 10:00 ~ 1. 28(수) 17:00
• **접수장소** : http://www.khnp.co.kr 내 "채용"

4. 채용 상세내역 확인

• 한수원 홈페이지(http://www.khnp.co.kr) 내 "채용안내" 참조
• **문의전화** : 한국수력원자력 인재양성팀(☎02-3456-2867, 2147)